

김민재, 아시아 수비수 최초 발롱도르 후보

한국 축구 간판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축구 최고 권위의 상인 발롱도르 후보 30명에 이름을 올렸다. 수비수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다.

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 축구 전문 매체 프랑스풋볼은 이날 김민재를 포함해 발롱도르 후보 30명을 발표했다. 한국 선수가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건 설기현(2002년), 박지성(2005년), 손흥민(2019년·2022년)에 이어 김민재가 네 번째다. 특히 수비수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후보에 올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발롱도르 후보에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엘링 홀란(맨체스터시티), 앙투안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킬리안 음바페(파리



▲ 김민재가 2023년 발롱도르 최종 후보 30인에 선정됐다. 사진=바이에른 뮌헨 홈페이지

생제르맹) 등 쟁쟁한 스타들이 이름을 올렸다. 수비수로는 후벵 디아스(맨체스터시티), 요슈코 그바르디올(맨체스터시티), 김민재 등 3명만 후보에 올랐다. 메시는 통산 8번째 발롱도르 수상을 노린다. 반면 메시의 뒤를 이어 발롱도르 통산 수상 2위(5회)에 올라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는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김민재는 2022~2023시즌 나폴리(이탈리아)에서 활약하면서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고,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았다.

이어 2023~2024시즌을 앞두고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김민재는 한국 선수 역대 최고 발롱도르 순위도 노린다. 손흥민은 2019년 22위였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지난해에는 최종 1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하성, MLB 전문가 선정 '최고 2루수'



▲ 1루로 송구하고 있는 김하성. 사진=연합뉴스

김하성(27·샌디에이고)이 MLB 감독과 스카우트, 관계자들의 투표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 능력을 갖춘 2루수로 선정됐다.

미국 야구 전문 잡지 '베이스볼 아메리카'가 6일 발표한 '최고의 재능을 갖춘 선수' 설문 조사에서 김하성은 '2루수 수비 부문' 1위에 올랐다. 니코 호너(시카고 컵스), 오지 윌비스(애틀랜타)가 2, 3위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김하성은 한국인 최초의 MLB 골드글러브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김하성은 지난해 MLB 내셔널 리그 골드글러브 유격수 부문 최종 후보 3인에 올랐지만 당시 애틀랜타의 댄스비 스완슨(컵스)에 밀려 수상이 무산됐다.

올해 김하성은 수비로 얼마나 점수를 막았는지 알려주는 DRS(Defensive Run Save)에서 MLB 전체 내야수 중 8위에 올라 있다. 2루수 출전 DRS에서는 MLB 전체 5위이다. 3루수, 유격수로도 출전하는 터라 DRS에서 손해를 보는 상황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KBO리그를 거쳐 지난 2021년 빅리그에 진출한 김하성은 공수에서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MLB에서도 인정받는 내야수로 발돋움했다. 특히 이번 시즌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초로 30도루를 돌파했으며 이날 현재 17 홈런을 기록하고 있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MLB 무대에서 20홈런-30도루 기록을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US오픈에서 나치 시절 '독일국가' 부른 관객 퇴장

US 오픈 테니스대회 경기중에 나치 독일 시절 국가를 부른 관객이 경기장에서 쫓겨났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포스트는 전날 뉴욕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알렉산더 츠베레프(12위·독일)와 안니크 신네르(6위·이탈리아)의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한 남성 관객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독일 출신의 츠베레프는 2-2로 맞선 4세트에서 갑자기 경기를 중단했다.

그는 심판에게 한 관객이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는 문구를 외쳤다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심판은 문제의 관객을 퇴장시킬 것을 명령했고, 경비요원들이 이 남성 관객을 찾아내 경기장 바깥까



▲ 경기중 나치 독일 시절 국가를 부른 관객에 대해 심판에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알렉산더 츠베레프. 사진=유튜브 캡처

지 동행했다. 문제의 관객이 퇴장한 뒤 경기는 재개됐고, 츠베레프가 4시간 41분 승부 끝에 3-2로 승리했다.

츠베레프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문제의 관객이 히틀러 시절의 국가를 불렀다. 이는 너무 나간 행동"이라고 말했다.

1841년 작곡된 이 노래는 나치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독일의 국가였지만, 가사 중 '독일은 가장 위대하다'는 대목이 나치 시절 정치적으로 악용됐다. 이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국가가 사에서 이 대목이 삭제됐다.

미국 테니스협회는 문제의 관객이 츠베레프를 폄하하기 위해 나치 시절 국가를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장님, 링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